



“연중 제 28 주일”

<http://www.sjkoreancatholic.org/>

[루카 17.11.19

2010.10.10.

## 금주의 강론

(요셉 신부님 (강론에서))

좋은 때건 고통스러운 때건 하느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고통처럼 보일지라도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할 유일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의 무수한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희생으로 영원한 행복을 다시 얻게 되었으니 그것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육체의 병이 고쳐진 것으로 그리스도를 찾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물며 영혼의 병을 고쳐주신 하느님께 얼마나 큰 감사를 드려야겠습니까?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자상하게 그리스도께서 감사하는 방법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사입니다. 미사는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을 기념하며 기억하고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구원의 도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에 나오지도 않고 나왔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준 것조차 알미워 빼앗고 싶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미사는 감사입니다. 예수님도 오천 명 앞에서 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미사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미사에 나왔더라도 감사와 찬미가 없었다면 미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미사는 은총을 불어나게 하는 가장 귀한 열쇠입니다. 될 수 있으면 매일미사에 참여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생활을 하도록 결심합시다



### 가족 동정 및 공지 사항

#### ● 축 입단

4구역의 정병권(라파엘) 형제님이 10/10일 부터 베이스 베이스 파트로 성가대에 입단하기로 하였으니 진심어린 사랑의 환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성탄절 성가 연습:

10월 10일 부터 성탄절 성가 연습을 시작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단 10월 24일은 성가 연습방 부족 관계로 오후 연습은 없겠습니다.

● 주 예로니모 단장님 10/9-10/16일까지 2주간 여행을 떠나십니다. 주님과 함께 편안한 여행 되기실 기도합니다. 단장님 부재시에는 허 수산나 자매님이 모든 일을 대신 할 것입니다.

● 항상 수고해 주시는 다니엘 형제님이 성탄절 연습곡을 CD로 제작중에 있습니다. 현재 본당 웹에 올라 있는 파일로 연습하시어 부족한 연습시간을 채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래아 사이를 지나 가시게 되었다. 어떤 마을에 들어 가시다가 나병환자 열 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크게 소리쳤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하셨다. 그들이 사제들에게 가는 동안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예수께 돌아 와 그 발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몸이 깨끗해진 사람은 열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 갔느냐?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러 돌아 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냐!" 하시면서 그에게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하고 말씀하셨다.



### 1분 명상

### "마음의 그릇"

손을 반듯하게 펴면  
 세상 모든 것을 감쌀 수 있으나  
 어느 하나에 집착하여 손을 오므리면  
 터럭 만한 것만 잡힐 뿐입니다.

따라서 욕심을 부리면  
 내 손아귀에 있는 것만 내 것이지만,  
 욕심을 버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릇에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나타났을 때  
 재빨리 담아 두기 위해서는  
 되도록 많이 비워 놓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쓸데없는  
 잡동사니로 채워 높으면,  
 큰 것은커녕 작은 것조차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나타나더라도  
 버려야만 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공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와 함께 길을 가는데  
 그 두사람이 나의 스승이라.

'착한 사람에게서는 그 착함을 배우고  
 악한 사람에게는 악함을 보고  
 자기의 잘못된 성품을 찾아  
 뉘우칠 기회를 삼으니 착하고 악한  
 사람이 모두 내 스승이다.' 라고 했습니다.

배우는 마음을 가졌을 때  
 모든 환경이 배움의 소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